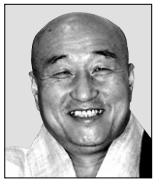


일주문



장기이종작은 콘서트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3월 17일 마포 BBS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생명나눔 작은 콘서트'를 개최한다.



통도사 영불공덕회 창립
양산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3월 5일 설립전 문수법당에서 영불공덕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선운사 보살계 수계법회
고창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4월 22일 선운사 금강계단에서 통도사 율주 해남 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보살계 수계법회를 개최한다.



동국대 사우디 주유대학 MOU
김희국 동국대 총장은 3월 9일 접견실에서 투르키 파흐드 알아이아트 사우디문화원장과 동국대·사우디아 주요 대학 간 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삼론종 제4세 종정 혜승 스님 추대



대한불교삼론종(총무원장 진봉)은 3월 3일 포천 늘봄웨딩 연회장에서 '제3세 종정 이임 및 제4세 종정 추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각 종단 대표자들과 포천군 인사, 삼론종 종도 등 사부대중 80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원장 해불 스님의 고불문을 시작으로 봉행된 이날 법회에서 제3세 혜공 스님의 종정 이임과 제4세 종정 혜승 스님의 종정 추대, 제4세 부종정 인봉 스님의 추대가 차례로 진행됐다.

총무원장 진봉스님은 추대사를 통해 "제4세 혜승 종정 스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위법망구의 자세로 공부하고 포교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스님의 추대사에 이어 제4대 종정 혜승 스님에게 추대패 증정, 5대성물 봉장이 이어졌다.

혜승 스님은 "손가락으로써 달을 가르키되, 달이 손가락에 있지 않고, 말로써 법을 설교하되, 법이 말에 있지 않다"는 취임 법어를 내렸다. 한편, 삼론종 제4세 종정 혜승 스님은 1943년 충주 출생, 1963년 충주 대원사에서 승현 우암 대종사를 은사로 득도했다. 1983년 불이성 법륜사에서 태고종 덕암 스님을 법사로 건당한 스님은 1984년 서울 톨비니 포교원을 개원했다. 1988년 대한불교 삼론종 창종위원회 추대된 이래 문화원장 포교원장 사정원장 종회의장 총무원장 등을 역임했다. 2007년 삼론종 부종정으로 추대. 1990년 포천 보문정사를 개원했다. 포천불교사범회 회장, 포천경찰서 경승실장 등을 역임했다.

제4세 부종정 인봉 스님은 1998년 우암정사에서 창종 주이신 대산 스님을 법사로 건당했다. 경남교구원장, 종회의원, 포교원장 승정 등을 역임했다. 조동섭 기자

“명상·상담 통해 군포교 주력”

황수경 명상리더십센터 센터장



“군 장병 포교는 청년 불자 포교의 핵심이자 불교의 희망입니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애주) 산하 센터인 여성인재개발센터가 '명상리더십센터(센터장 황수경·사진)'로 새롭게 단장했다. 여성 불자에만 국한했던 포교활동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포교역량을 넓히기 위해서다.

명상리더십센터는 올해 첫 주요 사업으로 군 불자 인재양성과 군법당 지원에 주력할 예정이다. 황수경 명상리더십센터장은 “군 포교 활동을 명상을 통해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즘 사회적으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군 장병들은 집단생활을 하며 많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해결하지 못한 가족문제, 학교폭력, 왕따 문제 등이 겹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수경 센터장은 “군포교 봉사활동

면 자연스레 불심도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 군부대에는 500여 법당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 속한 군장병들을 일일이 보살피는 일은 쉽지 않다. 명상리더십센터는 그 해결방안으로 군종특별교구와 협력해 100명을 대상으로 예비군승과 군종병사, 군 교육지도자에게 명상과 상담교육, 집단상담, 범회 지원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 센터장은 “지도자들에게 직접 교육을 시켜 군 자체에서 명상 프로그램과 상담활동이 자생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명상리더십센터는 3월 안으로 ‘군교육협의회’를 구성하고, 8월과 10월 예비군승과 불교 군종병사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황수경 센터장은 “앞으로 청년불교의 희망인 군 포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02)722-2101 국민 023501-04-143851(사)지혜로운여성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내실있는 종단 운영 지원에 최선을”

사암단체총聯, 국회서 워크숍 성료

전국사실사암단체총연합회(회장 지암, 이하 전사련)는 3월 2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국운융창 민족대화합기원 및 지부종단 연대결성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국 171개 종단대표자가 참석한 행사는 출범 2주년을 맞는 전사련이 모범적인 한국불교단체로서 한국불교 세계화를 선도할 명실상부한 범인단체로 자리매김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서 각 종단대표자들은 한국 불교종단단체의 편견과 한계를 공동 극복하고 자체 종무행정 서비스를 제 공해 선진화된 조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한국불교단체가 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전사련은 3월 현재, 171개 종단과 1만여 사람이 등록된 최대 규모의 불교 단체로 조직화되고 있다.

전사련 회장 지암 스님(임제불교조계종 종정)은 “전사련은 모든 종단 단체들이 발전적인 불교단체로 성장할 정보교류와 참여의 장이 되고 있다.



이를 통해 소통과 공감의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되는 범인단체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윤기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성종단의 명성에만 치우치지 않고 진짜 내실 있는 종단운영이 되도록 다양한 종무행정을 지원하며 종단대표자들의 리더십이 확보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전사련은 “이날 행사를 계기로 종단종무행정 실무에 대해 상호 연구해 현장에 적용하며 실무이론에 기초한 다양한 포교활동을 통해 경쟁력 있는 불교단체로 발전하겠다”고 다짐했다. 02)2198-5022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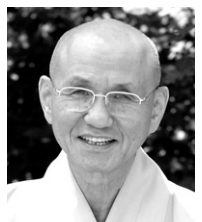
월주 스님 등 7인 2012 만해대상

만해대상실천선양회(총재 자승)가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 등 7인을 올해 만해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월주 스님은 캄보디아 평화 운동가 아키 라(39)와 함께 평화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실천부문에 천주교 前 안동교구장 르네 뒤퐁(83), 인도 우타라 칸드 주정부 불교장관 오타니 문수 고신(32),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시장 커트 그리블(48)이, 문예부문에 쿠웨이트 시인 수아드 알 사바(70), 김재홍(65) 문학평론가가 각 부문에 선정됐다.

이번 만해대상 수상자들은 다양한 종교와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예년에 비해 수상자 연령층은 낮아졌다. 만해대상실천선양회 측은 “젊은 인재를 발굴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젊은 수상자를 많이 배출했다”고 밝혔다.

월주 스님은 2003년부터 지구촌공생회를 통해 다양한 구호활동을 펼쳐 왔다. 최근에는 캄보디아에 우물 1000개를 파고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등 많은 나라에 교육지원 및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힘쓰고 있다.

아키 라는 캄보디아의 평화운동가이자 지뢰제거 전문가로, 1993년부터 독자적으로 캄보디아 전국에 묻혀 있



월주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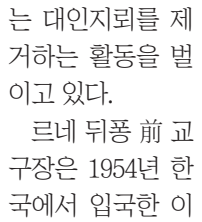
오타니 문수 고신



르네 뒤퐁



김재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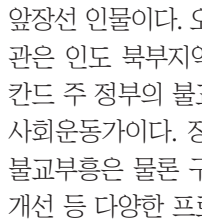
커트 그리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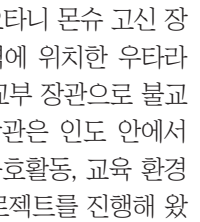
수아드 알 사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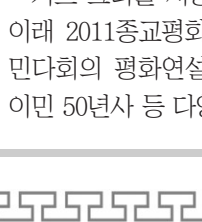
아키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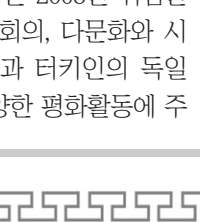
르네 뒤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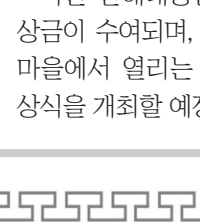
김재홍



커트 그리블



수아드 알 사바



아키 라



커트 그리블



수아드 알 사바



아키 라

자승 스님, 종지협 이사장 재선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이하 종지협)는 3월 9일 롯데호텔에서 '2012년도 이사회와 제1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사장(공동대표의장)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사(공동대표)에는 홍재철 한국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인준했다.

공동대표의장 자승스님은 5월 2일로 임기가 만료하나, 재선출로 5월 3일부터 2년간 공동대표의장 직을 수행하게 된다. 조동섭 기자

세계평화순례단 명상수행 워크숍

세계평화순례단(단장 법산)은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태국 스님 16명을 초청해 10일간 명상수행 워크숍을 진행했다. 세계평화순례단은 국기를 넘어선 봉사와 종교를 넘어선 수행을 통해 평화세계구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2011년 한국스님들을 중심으로 결성됐다.

워크숍에서는 한국스님들의 지도로 한국전통의 참선명상을 오후에는 태국스님 지도하에 남방위빠사나 수행의 비교수행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또 조계사 방문, 태국구호단체 방문, 북한산 돌레길 걷기명상 등 일정이 진행됐다.

태국 기미 스님은 “평소 한국의 새마을운동정신을 흠모해왔다. 4월 중 태국에서 열리는 2차 워크숍에서 양국 불교발전을 더욱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수료식에서는 ▷국가를 넘어선 봉사 ▷종교를 넘어선 수행 ▷세계평화순례 ▷세계언어통일 ▷세계평화경전편찬 등 5대선언이 결의문으로 채택됐다. 노덕현 기자

능엄신주 독송기도, 영가천도 봉행

꿈바위불교교육원(원장 공세화)은 2월 29일 서울 종로한일관 연회장에서 '능엄신주 독송기도 및 영가천도 법회'를 봉행했다. 50여 대중에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공세화 원장은 “능엄경 7번째 능엄신주는 병든 마음을 닦는 거울이어서 진솔한 마음으로 항상 독송하면 모든 업장을 녹일 수 있다”고 말하고 직접 독송과 의미 해석을 강연했다. 노덕현 기자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종교지도자 대국민 호소문

바르고 깨끗한 선거 실현을 위한 대 국민 호소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20년 만에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가 한 해에 실시됩니다.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는 3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선거는 국정을 견제·감시하는 의회의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지역과 국민을 위해 누가 더 책임자인지 선거를 통해 선택하는 것은 국가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선거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국민이 희망과 꿈을 갖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적인 선거로 치러지길 기대합니다.

우리 종교지도자들은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이하여 종파를 떠나 국가의 밝은 미래를 기원하며 국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간곡히 호소합니다.

첫째, 민주정치 발전과 국민화합을 위해 바르고 깨끗한 선거 실현에 우리 모두 동참합니다.

둘째,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눈 감아 주지 말고 서로 경계하고 지적하여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서로 도와줍니다.

셋째,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여 유권자의 마음을 얻도록 노력합니다.

넷째, 올바른 선택을 위해 정당·후보자의 정책·공약을 꼼꼼히 비교하고 따져보아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정당과 후보를 선택합니다.

다섯째, 유권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합니다.

2012. 3. 9.

사)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 공동대표의장 자 승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 공 동 대 표 홍 재 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 공 동 대 표 김 희 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대주교)
- 공 동 대 표 김 주 원 (원불교 교정원장)
- 공 동 대 표 최 근 덕 (유교 성균관장)
- 공 동 대 표 임 윤 길 (천도교 교령)
- 공 동 대 표 한 양 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